

《칼의 노래》에 매혹당한 프랑스 대표출판사 갈리마르

독일, 스페인, 일본, 중국 등에서도
출간과 출간 검토 잇달아

2001년 동인문학상 수상, 2005년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의 책 100' 선정,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원작 결정, 정치권 열독 붐 등 숱한 화제를 낳으며 스테디셀러로 사랑받고 있는 김훈의 《칼의 노래》가 한국을 넘어 세계의 독자들 과 만나게 됐다.

《칼의 노래》를 출간한 출판사 생각의나무는 지난 5월 11일, 프랑스 대표 출판사로 세계문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갈리마르(Editions Galimard) 측으로부터 반가운 팩스를 받았다. 《칼의 노래》 프랑스어판 출간을 결정지었다는 내용과 함께 출간조건을 제시해 온 것.

갈리마르 측이 《칼의 노래》를 접하게 된 데는 프랑스어 공동번역자 Tiphaine Samoyault 씨의 도움이 컸다. 한국문학번역원 지원으로 《칼의 노래》를 공동 번역한 Tiphaine Samoyault 씨는 《칼의 노래》가 가진 작품성에 감탄. 지난 2004년 8월 평소 친분이 있던 갈리마르 측에 번역본을 건네주었다. 번역본을 검토한 갈리마르 측은 "너무나 열광적인 느낌으로(Feel really very enthusiastic)" 작품을 검토한 끝에 갈리마르의 대표적인 문예시리즈인 '뒤 몽트 앙티에 Du Monde entier(전 세계) 시리즈'로 출간하기로 결정했으며, 《Le chant du sabre》라는 제목으로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갈리마르 출판사는 번역출간 계약 조건으로 2,500유로의 선인세와 5,000부까지 8퍼센트, 1만 부까지 10퍼센트, 그 이상 12퍼센트라는 인세조건을 제시하고, 김훈의 다음 작품에 대한 우선적 검토를 옵션으로 요청했다. 김훈의 다른 작품 《현의 노래》와 이후 작품의 출간까지 확정된 생각의나무로서는 반가운 제안이 아닐 수 없다.

생각의나무 홍대규 기획부장은 "갈리마르 측의 출간조건에 작가와 출판사가 합의했다는 뜻을 이미 전달했으며, 현재는 정식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 현대문학의 세계시장진출이라는 반가운 소식은 침체된 한국문학에 자극이 되고, 한국문학의 보편성 획득과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뒤 몽트 앙티에 시리즈'는 1931년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갈리마르 출판사의 대표세계문학 시리즈다. 카프카, 헤밍웨이, 톨스토이, 토마스 만, 바르가스 요사, 피터 한트케, 필립 로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의 검증받은 걸작들을 엄선, 목록을 더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전 세계의 현대작가와 신인작가들의 작품을 발굴, 출간하고 있다. '뒤 몽트 앙티에 시리즈'는 아모스 오즈, 이완 맥완, 오르한 파묵, 엔스 크리스티안 그뢰달 등의 작품을 최근 출간하기도 했다.

한편 《칼의 노래》는 일본의 최대 출판사이자 대표적 문예출판사인 신조사에서도 《도노詩》라는 제목으로 지난 5월 27일 출간되었다. 선인세 150만 엔이라는 파격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일본어판을 출간하는 신조사 측은 일본 독자 반응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당초 5월 초에 김훈을 초청해 강연회 등 사전 프로모션을 계획했던 신조사는 독도문제로 어수선한 양국 상황을 감안해 도서 출간 후로 작가 초청을 연기했다. 또한 《칼의 노래》는 프랑스어, 일본어 이외에도 주요 언어로 번역출간이 준비중이거나 타진 중에 있다.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 기간에 즈음해서는 스페인어판이 출간될 예정이며, 독일과 중국어권의 판권계약이 현재 타진중에 있다. ■

취재 박용두기자

